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WHAT LIES BETWEEN US

가제 : 나는 엄마를 가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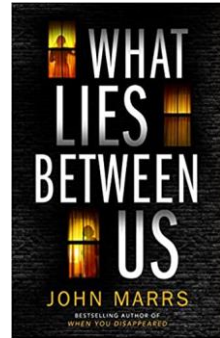
저자 : John Marrs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20년 5월 15일

분량 : 379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MGM에서 영화화 예정 & 전작 THE ONE은 올해 넷플릭스 10부작 드라마 제작 예정

★ 현재 아마존 베스트셀러 9위

★ 아마존 기준 전세계 900,000 명 이상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저자의 신작

★ 전작 GOOD SAMARITAN은 ITW Award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

★ “뛰어난 심리 스릴러. 자신의 어머니를 다락방에 가둔 한 여자의 이야기” - 베스트셀러 『Behind Her Eyes』의 저자 사라 피노버로우

니나는 엄마 매기가 과거에 저지른 일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떠날 수도 없었다. 어떤 가족에게나 한 두 가지 정도의 비밀은 있는 법이지만 그들의 비밀은 결코 과거에 묻힐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니나는 엄마를 다락방에 가둬버렸고 엄마는 자신이 딸에게 저지른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니나는 여전히 과거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았다. 이 모녀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소름 끼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불편하지만 흥미로운 감정들을 자극하는 스릴러 소설이다.

예순 여덟 살의 매기는 니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아왔던 이 집의 다락방에 갇혀 살고 있다. 물론 매기가 이 다락방에 갇혀 발목에 사슬을 달고 살게 된 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엄마 매기에 대해 모든 애정과 연민을 다 끊어내기로 결심한 니나의 선택이었다. 매기는 셔터가 설치되어 절대 깨질 일도, 열릴 일도 없는 그 방 창문으로 하루 종일 이웃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 매기는 절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니나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자신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며 소리를 쳤고, 저녁 시간만 오직 매기가 아래층에 내려오도록

허락되는 시간이었다.

니나는 엄마가 닭고기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닭고기 요리를 준비했다. 이 요리는 이 집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인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엄마가 일부러 과장된 표현까지 하면서까지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요리를 맛있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꽤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린 시절 두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모녀 관계였을 때처럼, 그 시절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면 니나는 매기에게 다가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계 손목을 움켜잡았다. 매기는 자신의 살을 파고드는 니나의 손톱을 보면서 입을 꼭 다문 채 그 통증을 참았다. 그 의식이 끝나면 비로소 매기는 다락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25년 전 열네 살 소녀였던 니나는 평소처럼 방과후 집에 돌아 오자마자 엄마 매기를 찾아 다녔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매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상한 모습으로 정원에 멈춰 서 있다가 붉게 충혈된 눈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니나에게 아빠와 이제 헤어져 살기로 했으며 그는 이 집에서 떨어진 곳에 이미 새 집을 얻은 상태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 후 니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니나는 매기를 원망했고 시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와 술주정을 하거나 밤에 몰래 집에서 빠져나가기도 했고 학교 공부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변태들을 상대로 성적인 거래를 하거나 매기에게도 공격적인 위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기는 니나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기는 니나의 미래를 위해 그 아기를 없애기로 결심했고 그 사실을 모르던 니나는 어느 날 유산을 하는 바람에 심한 복통에 시달렸다. 아빠가 떠난 후 처음으로 니나는 전적으로 다시 매기에게 의지하고 싶어졌다. 매기는 사실 아빠에게는 ‘염색체 결핍증’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며 만약 니나가 아기를 가질 경우 이 유전병 때문에 유산을 하거나 성공적으로 출산을 하더라도 아기가 금방 사망에 이르거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니나는 곧 겁에 걸렸지만 그 후 스물 두 살의 ‘존 헌터’라는 소아성애자 가수와 잘못된 관계에 깊이 빠져들고 매기는 니나를 보호하기 위해 평생 자신을 저주하게 될 선택을 했다. 하지만 매기의 그 선택은 존을 이십 년 넘게 감옥에서 복역하게 될 살인자로 만들었고 그 후 니나는 매기를 평생 저주하며 살기로 됐다. 독자들은 니나와 매기가 번갈아 가면서 들려주는 그들의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매기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결코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존 마스 (John Marrs)는 런던에서 살고 있는 전직 기자이자 작가이다. 그는 음악, 텔레비전, 영화 등 전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인사들을 만나 인터뷰 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업 작가가 되었다. 이 책의 그의 일곱 번째 책이다.

제목 : THE NOTE

가제 : 출근길 로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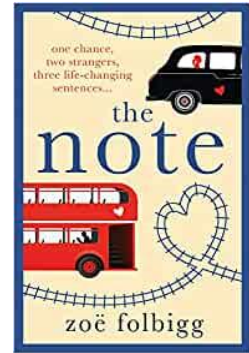
저자 : Zoe Folbigg

출판사: Aria

발행일: 2017년 11월 2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240,000부 판매!

★ 2019년 11월, 영국 아마존 베스트 셀러 1위!

★ 저자에 경험을 소재로 한 실화 기반의 로맨스

어느 평범한 아침, 패션 회사에서 일하는 마야 플라워스는 런던행 출근 기차 안에서 새로운 얼굴을 발견한다. 마야는 부디 그 남자가 관광객이 아니라 매일 이 기차를 타는 사람이길 간절히 바라며 그 다음 날에 같은 시간에도 그를 애타게 기다린다. 그리고 그녀의 바람은 현실이 되어 매일 같이 그의 얼굴을 보며 출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날 이후 거의 일 년 동안 그녀의 평범하기만 했던 일상이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마야는 그를 본 그 순간 그가 바로 자신의 반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멋진 남자는 매일 그녀와 마주치면서도 출근 길에 늘 책에 코를 박고 있느라 마야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는 듯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야의 친구는 마야에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마음을 전하도록 격려한다.

자신의 생일, 마야는 드디어 이메일 주소와 함께 세 문장으로 자신의 마음을 간결히 표현한 쪽지 한 장을 ‘기차남’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지만 드디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며 좌석에 앉았다. 마야는 사랑에 빠져 있는 낭만적인 여성이자, 패션계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기도 했다. 마야는 의류와 패션에 관한 카피를 쓰는 편집장으로 세련되고 매혹적인 글 솜씨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며 패션계에서 유력한 인물 중 하나였다. 게다가 지난 12월, 마야는 그럴싸한 2층집을 구매해 정성을 들여 꾸미며 생전 처음으로 오롯이 혼자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겉으로 내보이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는 여성이었고 동시에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의 가도에 올라탔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는 화려한 삶에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앞에 어느 날 기차남이 나타난 것이다.

며칠 후, 마야의 이메일함에는 기차남이 보낸 이메일이 도착한다. 기차남의 이름은 ‘제임스 밀러’였고 이메일 가장 아래 서명란을 보니 그는 한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에게 이미 여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야는 당장이라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일 년 넘게 좋아했던 사람에게 여자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옷과 아름다운 신발을 신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차려입은 날이었지만 그의 이메일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를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만 같았다.

한 편 그 쪽지를 받기 일 년 전, 제임스는 아직 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수선한 집으로 돌아왔다. 제임스는 먼저 방에 가득 쌓여있는 상자들을 먼저 정리하기로 했다. 그 박스들에는 주로 음반 레코드들과 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이는 늘 여자친구 키티의 불평의 대상이 되곤 했다. 키티는 제임스에게 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사는 게 어떨겠냐고 몇 번이나 제안했지만 그건 제임스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었다. 제임스가 이곳으로 이사 온 이유는 과학자인 키티가 근처 대학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거리 상 이곳에 사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둘은 단순히 오래된 연인으로 미래를 약속한 꽤 진지한 사이였다. 제임스는 집에 온 키티에게 새로운 직장 생활을 응원하는 의미로 선물 하나를 건넸다. 키티는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제임스의 손을 맞잡았고 열여섯 살 이후 지금까지 쪽 함께 지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그의 손을 잡고서는 낯선 기분이 들었다. 키티는 온종일 실험실에서 장갑을 끼고 보내느라 손의 피부가 상했던 터라 그 선물이 부디 핸드 크림이길 바랐다. 키티는 기쁜 마음으로 포장지를 뜯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포장지를 풀자, 스탠리 돈우드의 디자인 회화 작품이 나온 것이다. 키티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바로 제임스에게 자신은 벽에 걸 자리도 없는데 이런 끔찍한 그림을 선물로 전혀 받고 싶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제임스는 선물을 그냥 두고 화를 내며 위층으로 올라가 버린 키티를 바라만 볼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만나 사랑하게 된 두 사람의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키티는 제임스가 아끼는 물건을 던지고 부수기까지 했다. 제임스는 점점 생기와 미소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즈음 마야의 쪽지가 그에게 전해진 것이다. 제임스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마야는 다시 한 번 일생 일대의 기회를 얻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저자의 실제 경험이 녹아 있는 선택과 기회,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조에 폴빅 (Zoë Folbigg)은 매일 출퇴근 길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 낭만적인 사연을 가진 저자이다. 저서로는 The Distance와 The Postcard (The Note의 속편)이 있으며 엘르, 선데이 타임즈 스타일, 코스모폴리탄등 여러 유명 잡지사의 편집자로 일한 바 있

제목 : DARK TRIBUTE

가제 : 침입자

저자 : Iris Johansen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9년 8월 27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서스펜스물을 사랑하는 팬들이 열광할 소설" - 퍼블리셔 위클리**

***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로맨틱 서스펜스**

비극적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잘 극복하고, 카라 델라니는 전문 음악가로 살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절도 잠시, 카라는 가족의 과거와 관련된 한 미스터리한 남자에게 납치되고 만다. 그리고 카라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역시 위협에 처한다. 카라는 어두운 가족사의 제물로 생을 마감하게 될까 아니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로맨스와 서스펜스가 결합된 매력적인 스릴러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음악당, 존 스바르닥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카라 델라니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젊은 음악가를 ‘이 시대 최고의 음악가’라고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존 스바르닥은 그녀를 칭송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어 화가 날 지경이었다. 자신이 보기에 카라는 아무짝에 쓸모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존은 어제부터 계속 그녀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스케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면 카라는 열한 살 때부터 그녀의 보호자 역할을 맡고 있는, 전직 유명 법의학 전문가 이브 던컨과 전 FBI 요원이자 현 탐정인 조 퀴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으로 갈 예정이었다. 연주회를 마친 카라는 존의 예상대로 이브와 조, 두 사람의 아들 마이클이 살고 있는 애틀랜타의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사실 카라는 마음이 좀 상해있었다. 카라와 밀당을 하는 조크가 카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이클이 서프라이즈 작전을 기획했는데 그 일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조크는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 365일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뉴욕에서 카라의 공연이 있던 날, 겨우 몇 시간 전에 카라와의 약속을 취소해버렸다. 카라는 18개월 동안이나 그를 만나지 못한 상태였고 그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지쳐 있었다.

사실 조크는 겨우 다섯 살에 ‘토마스 라일리’라는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되어 인간 병기로 길러진 사람이었다. 이브는 혹시 조크가 자기의 과거가 카라의 커리어나 삶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 일부러 카라를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크뿐만이 아니었다. 카라의 부모님은 멕시코 기반 카르텔 조직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카라의 엄마는 카라의 존재가 자신들의 인생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카라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게다가 그녀의 할아버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조폭 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한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이브와 조는 그런 공포 속에서 카라를 구해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카라는 엄마가 자신의 친딸이자 카라의 여동생인 제니를 죽이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말았다. 이런 경험은 카라의 평생을 트라우마가 되어 따라다녔다. 오직 조크만이 그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카라는 조크 덕분에 트라우마에서도 조금씩 벗어 날 수 있었다.

카라는 애틀랜타에서의 일정대로 한 병원 자선 파티가 열린 호텔에서 연주를 마쳤다. 호텔 스위트 룸으로 돌아온 카라는 잔뜩 지쳐 있었다. 이 곳에는 또 무슨 공공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마이클도 와있었고 조크의 투자 솜씨 덕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린, 조크의 가장 친한 친구 맥더프 경과 조크도 와 있었다. 카라는 조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잔뜩 흥분한 상태였다. 카라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호텔 데스크를 통해 그의 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몇 분 후 두 사람은 마침내 조크의 방에서 만났다. 카라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조크에게 솔직하게 표현했다. 하지만 조크는 카라에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카라가 과거의 굴레와 자신에게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길 바란다고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카라는 계속해서 조크를 유혹했다. 하지만 조크는 곧 잠든 그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고 다음 날 함께 이브와 조가 있는 오두막집에 가자고 약속했다.

다시 호텔 방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카라는 등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를 느꼈고 머지않아 자신의 목에 날카로운 바늘 같은 것이 깊숙이 들어온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다. 그리고 다음 날 시간에 맞춰 카라의 호텔 방 앞에 도착한 조크는 아무리 문을 세게 두드려도 카라가 답이 없자, 전날 밤 일로 단단히 화가 난 그녀가 일부러 혼자 이브의 집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라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여자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분노를 표현할 여자가 아니었다. 게다가 이브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카라가 그 집으로 간 것도 아니었다. 카라는 어디로 간 것일까? 애타는 로맨스와 스릴러가 어우러진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아이리스 조핸슨 (Iris Johansen)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전작으로는 『Mind Game, Night and Day』, 『Hide Away, Shadow Play』, 『Your Next Breath』, 『The Perfect Witness』, 『Live to See Tomorrow』, 『Silencing Eve』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또한 그는 아들 로이 조핸슨 (Roy Johansen)과 함께 『Night Watch』, 『Sight Unseen』, 『Close Your Eyes』, 『Shadow Zone』, 『Storm Cycle』 및 『Silent Thunder』를 썼다.

[크리스마스 소설 시리즈]

#1

제목 : A WINTER WEDDING AT WILLOW TREE HALL

가제 : 윌로우 저택의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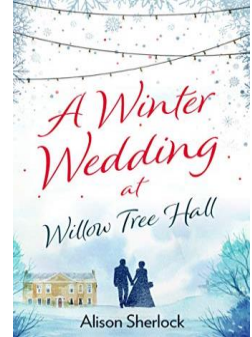
저자 : Alison Sherlock

출판사: Aria

발행일: 2018년 11월 6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까 감빡이는 곳에서 읽기에 딱 좋은 책 - 독자, 사르 반 애커

★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던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

스카이와 윌, 두 사람은 겉보기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마음 속 깊이 슬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스카이는 어느 날, 자신들만 남겨 두고 훌쩍 사라져 버린 엄마를 대신해 열한 살 무렵부터 여동생 썸머를 돌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말 좋은 줄게도 두 자매는 집 주인인 노먼의 배려 덕분에 행복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노먼마저 병환을 앓게 되자 스카이는 동생과 함께 노먼을 돌보았고 그가 세상을 떠나자 이제 두 자매는 살 곳도 잃어버린 채 노숙사 신세가 되고 말았다. 노먼은 썸머에게는 책들을, 스카이에게는 그가 그토록 아끼던 큰 뱅을 유산으로 남겼다. 그러던 어느 날 스카이는 노먼이 자신에게 남긴 놀라운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에서 그는 '버드나무 홀'이라는 저택을 찾아 가서 그 저택의 관리인이자 자신의 절친한 친구 아서 해리스를 만나보라고 말했다. 버드나무 홀은 엄청나게 큰 버드나무가 있는 대저택이었고 노먼이 친구 아서 해리스와의 내기에서 이긴 덕분에 절반을 소유하게 된 저택이자 스카이에 남긴 또 다른 유산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저택은 스카이의 것만은 아니었다. 그 저택은 아서의 손자인 윌의 것이기도 했다.

윌 역시 어린 시절 비극적인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된 바람에 대신 할아버지 아서와 함께 살며 성장했다. 그는 그 누구와도 온정을 주고 받은 적이 없었으며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또 그는 유명한 플레이보이로 온갖 가십과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이제 돈마저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런저런 추문에 지친 윌은 도시로부터 벗어나 저택에서 한동안 가족들과 지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는 바로 갑자기 나타난 저택의 공동 상속자 스카이었다. 윌은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던 스카이와 주차 문제로 한바탕 싸웠고 그렇게 둘은 서로에 대한 불쾌한 첫인상으로 만남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어머니에게 갑자기 버림받고 평생 동생과 아버지 같았던 노먼을 돌보는 일만 하며 살아왔던 스카이는 윌의 가족들과 지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새기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사랑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점차 배우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그 집을 차지할 속셈으로 티격대격하며 저택을 가꾸고, 윌의 형 썸의 결혼식을

함께 준비하며 점점 서로의 공통점과 아픔에 대해 이해하며 사랑에 빠지게 된다. 두 사람은 태어나 처음으로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집’을 찾게 될까? 너무나 달라 보였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통해 비로소 품게 된 인생의 희망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이자 사랑을 믿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앨리슨 셸록 (Alison Sherlock)은 이탈리아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데뷔 소설 The Desperate Bride 's Diet Club을 포함하여 따뜻함, 웃음, 사랑, 우정으로 가득 찬 이야기에 대해 쓰는 것을 좋아하는 작가이다. 그녀의 최근 시리즈 소설은 한 영국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2

제목 : A SHOP GIRL'S CHRISTMAS

가제 : 페닝턴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저자 : Rachel Brimble

출판사: Aria

발행일: 2019년 9월 19일

분량 : 40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로맨스



★ 한 호텔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다사다난한 인생 이야기와 한 연쇄 살인범을 쫓는 이야기

1911년 밤, 모두가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페닝턴 백화점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오가는 사람들, 화려한 조명에 빛나는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반짝이는 보석들이 펼쳐진 주얼리 샵을 맡고 있는 코넬리아 컬포드는 유독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한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범은 화려한 거리를 누비며 바스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코넬리아는 두 아들을 데리고 폭력적인 남편 데이비드를 떠나 남동생 로렌스와 그의 가족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코넬리아는 이 페닝턴 백화점의 사장 엘리자베스 페닝턴과 친한 시누이 덕분에 백화점 주얼리 코너에서 일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한편 그녀의 친절하고 수려한 외모에 매력적인 성품을 가진 페닝턴의 보안 책임자, 스티븐 고어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전직 경찰이었던 그는 3명의 여성과 한 명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을 끝으로 그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경찰직에서 물러났다. 그에게 있어 현 직장인 페닝턴 백화점은 그가 현실로부터 도피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하지만 범죄 사건에 일생을 걸기로 결심했던 그는 최근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당국의 재조사가 시작되자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만 백화점에서 일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 운영자인 엘리자베스 페닝턴과 그의 남편 조셉 카터가 그를 찾아와 5년 전 살해된 조셉의 전 처인 릴리안의 죽음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조셉과 엘리자베스는 한창 백화점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끔찍했던 릴리안의 사건을 해결해야만 비로소 자신들이 과거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조셉은 최근 자선 활동을 하다 죽은 채 발견된 한 여성의 사건을 접하고 그 피해 여성이 자신의 아내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살인범이 다시 바스로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러한 무자비한 살인자를 잡아낼 인재가 바로 스티븐이라고 생각했다.

스티븐과 코넬리아는 함께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가게 되고, 릴리안을 죽인 살인범이 최근 살인된 여성을 죽인 사람과 일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한 편 백화점의 쇼 윈도우를 장식하는 일을 하고 있는 코넬리아의 시누이 에스더는 남편 로렌스와 함께 여성 참정권 획득을 위해 함께 싸우고 생각을 공유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페닝턴 백화점 사람들은 마음 속 아픔과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백화점이라는 한 공간을 배경으로 그 곳에 우연히 모인 사람들의 삶과 아픔, 그들의 행복의 여정을 다룬 따뜻한 소설이자 흥미로운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레이첼 램블 (Rachel Brimble)은 영국의 유명한 조지 왕조 도시인 바스 근처에 살고 있으며 현대를 배경으로 한 낭만적인 서스펜스와 빅토리아 로맨스 소설을 쓰고 있다. 글을 쓰지 않을 때는 미국의 범죄 드라마와 영국 시대 드라마를 보는 것을 즐긴다.

#3

제목 : CHRISTMAS AT THE FOYLE'S BOOKSHOP

가제 : 포일 서점의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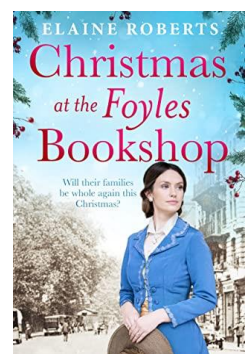
저자 : Elain Roberts

출판사: Aria

발행일: 2019년 10월 10일

분량 : 297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전쟁 가운데에서도 피어난 아름다운 우정에 관한 이야기. 이 책은 크리스마스를 위한 완벽한 책이다." - 베스트셀러 작가 피오나 포드**

1917 년 런던, 비극적인 기차 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게 된 빅토리아 애플턴은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금, 여동생 데이지는 등직한 경찰관이 되었고 동생 스티븐은 외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며 전쟁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빅토리아는 이전에 함께 서점에서 일했던 친한 친구들인 엘리스, 몰리와 함께 다시 포일스 서점을

함께 운영하는 꿈을 이루지만, 전쟁은 빅토리아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험 속으로 떠민다.

친구들 덕분에 서점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각자 맡은 일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물리는 아동 도서를 담당하게 되었고 앨리스는 계산대를 맡게 되었으며 빅토리아는 관리자로 승진하게 되었다. 특히 앨리스는 결혼 후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앉아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한편 물리는 집 문제로 남자친구 앤드류와 결혼 날짜를 미루고 있던 중이었지만 아버지가 집을 사주신 덕분에 앤드류와의 결혼을 앞당기게 되었다. 따라서 빅토리아는 이제 친구들 중 유일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군복무중인 남동생은 최근 들어 소식이 뜸했고 연인이었던 테드 마드슨은 군대에 간 뒤로 7년간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다 별안간 테드는 편지를 보내며 빅토리아에게 절절하게 용서를 구하던 중 갑자기 또 소식이 뚝 끊겨버렸다. 허탈한 빅토리아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부모님의 침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방을 정리하던 중 빅토리아와 여동생 데이지는 여러 의문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침실에는 빅토리아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값비싼 옷들과 낫선 이들의 결혼사진, 남동생 스티븐보다 일년 늦게 태어난 한 남자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비롯한 비밀스러운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빅토리아는 요동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남동생 스티븐이 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자신 역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런던의 중심, 코벤트 가든에 위치한 제1차 세계대전 군사 병원인 엔델 스트리트 병원 서 자원 봉사를 하며 부상 당한 군인들을 돌보기 시작한다. 또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름답게 서점을 꾸미고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책들을 선물하기로 한다. 빅토리아의 부모님들과 그들의 지난 삶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빅토리아는 사랑하는 연인과 동생을 결국 다시 만날 수 있게 될까? 어둡고 불안한 시기 속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고 가족의 사랑과 우정에 대해 다시 알아가면서 하나로 모이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일레인 로버츠 (Elaine Roberts)는 2012년 문예창작 교육을 마친 후 첫 단편 소설을 썼다. 이후 Romantic Novelists Association, The Society of Women Writers & Journalists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세미나 및 워크샵에 참여하고 있다.

#4

제목 : A DAD OF HIS OWN

가제 :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를?

저자 : Minna Howard

출판사: Aria

발행일: 2018년 8월 21일

분량 : 340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눈 대신 내린 엄청난 비로 낮선 사람들이 한 성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벌어지는 따뜻한 이야기이자 흥미진진한 로맨스 소설**

크리스마스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애나와 일곱 살 난 아들 프레디에게는 이렇다 할 별 특별한 크리스마스 계획이 없었다.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크리스마스는 한 번도 아빠의 사랑을 느껴 본적이 없는 아이인 프레디에게는 더욱 특별하고도 애잔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애나는 남편 개리도 없이 프레디와 온종일 크리스마스를 집에서만 보낼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해졌고 아들에게 아버지를 선물할 순 없지만 대신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주기로 한다. 그것은 바로 런던에서 떨어진 한 아름다운 성인 노스브룩 성에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것이었다. 애나는 그곳에 비라도 내리기라도 하면 이 성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프레디는 그 성을 보자마자 한 눈에 반한 것 같았다. 애나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 프레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기기를 원했다.

크리스마스 준비로 마을 어디나 떠들썩했고 온기가 넘쳤다. 애나와 프레디는 바쁘고 복잡한 런던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훨씬 느린 속도로 흘러가는 이 마을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지역 주민들과 언제나 자신들을 환영해주는 성의 직원들과 친구가 되어갔다. 하지만 애나와 프레디가 도착했을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했던 비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불어난 강물이 넘치는 바람에 온마을이 홍수로 쓸대밭이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즈음 따뜻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렸다. 애나와 프레디는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왔고 그나마 침수되지 않은 성으로 사람들을 데려와 돌보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애나는 성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사이먼과 루크와 한꺼번에 가까워지게 되고 삼각관계에 빠지게 된다.

애나의 새로운 사랑이자 프레디의 아빠는 과연 누가 될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아름다운 성에 모두 모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되면서 벌어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이자 설레는 크리스마스 로맨스이다.

<저자 소개>

미나 하워드 (Minna Howard)는 패션 저널리즘 분야에서 흥미로운 경력을 쌓은 바 있으며 현재는 손자와 시간을 보내거나 영화 및 TV 엑스트라로 일하면서 전업 작가로 살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THE TOP 1% HABITS, ATTITUDES, AND STRATEGIES FOR EXCEPTIONAL SUCCESS

가제 : 상위 1%는 무엇이 다른가: 상위 1%만의 습관, 태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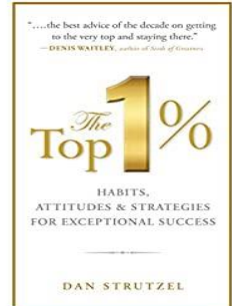
저자 : Dan Strutzel

출판사: G&D Media

발행일: 2018년 10월 9일

분량 : 222 페이지

장르: 자기계발



*** "성공을 위한 모든 아이디어들을 정리한 이 책은 당신이 상위 1%에 진입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

- 동기부여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최고의 조언과 함께 진정한 역할 모델 및 멘토가 되어줄 스투르젤은 시대를 초월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 『Seeds of Greatness』의 저자, 데니스 웨이틀리

흔히 사람들은 '상위 1%'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반감부터 느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상위 1%와 나머지 99% 사이의 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동기 부여를 유발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도 있지만 세계적인 자기계발 전문가인 저자 댄 스투르젤은 이 이론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경영가, 영업 사원, 운동 선수, 의사 및 변호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 또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는 금융 업계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은 결코 자신을 이 1%에 속한 인물들과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가 이 1%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흔하게 갖는 오해는 이 1%들이 99%의 불행을 자원 삼아 성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이들 대부분 자기 자신이 아닌 그들의 고객과 주주들에게 더 많은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며 깨어 있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고객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머리를 굴리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대중 매체는 이 상위 1%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기며 사실을 왜곡해왔다. 이에 그는 우리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1%의 악당들이 아니라 엘리트 소득 계급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진정한 1%가 되고 싶다면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1%의 진실에 대해서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소득 계급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상위 1%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준다. 독자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 가장 잘 알려진 신화와 상위 1%의 숨겨진 진실
 - 상위 1 %를 향한 노력이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 상위 1 %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12 가지 특성
 - "소비자 정신"이 아닌 "소유자 정신"을 개발하는 방법
 - 꿈의 직업을 "얻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만들어내야 하는 이유
 - 기존 목표 설정 개념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유, 상위 1 %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
 - 수입이 아닌 가치와 자본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 1 %와 99 %가 최고의 성공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
- 단순히 상위 1%에 속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유용한 영감을 선사하는 책이다.

<목차>

서문

1 장. 인생을 바꿀 결정

2 장. 상위 1 %의 신화와 현실

3 장. 평균은 끝났다, 노력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우수함을 갈망할 필요성

4 장. 진정한 기쁨. 상위 1 %는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5 장. 마법 같은 태도. 상위 1 %의 사고 방식

(이하 생략, 총 29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댄 스트루젤 (Dan Struzel)은 Nightingale-Conant Corporation의 전 출판 부사장이자 자기계발 산업 분야에서 25년의 경력을 가진 Inspire Productions의 사장이다. 그는 Tony Robbins, Brian Tracy, Jim Rohn, Robert Kiyosaki, Wayne Dyer 및 Zig Ziglar를 포함한 자기 계발 분야의 베스트 셀러의 저자들 및 유명 강연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제목 : REVENGE CAPITALISM

가제 : 리벤지 캐피탈리즘: 복수심에 불타는 자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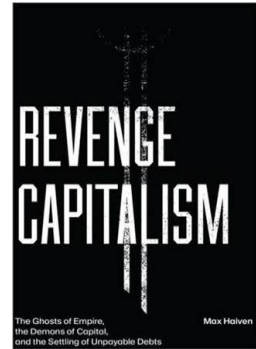
저자 : Max Haiven

출판사: Pluto Press

발행일: 2020년 5월 2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사회, 경제



★ "저자는 우리 시대의 가장 창의적이며 개혁적인 사상가일 것이다." 『Debt : The First 5000 Years』의 저자, 데이비드 그래버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후퇴의 근본적인 원인, 이 세상을 새로운 어둠으로 이끌고 있는 반동적인 경향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책" - 『Creditocracy and the Case for Debt Refusal』의 저자, 앤드류 로스

만약 우리가 내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유토피아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복수뿐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부를 축적하는 시스템에만 맞춰진 자본주의 시대의 유토피아에 살고 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속한 세계는 복수심으로 물들고 있다. 하지만 정말 애석하게도 저자 맥스 헤이븐은 이러한 복수심조차 우리 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상태에서 이익을 보고 있고 훨씬 더 큰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8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이 세계는 복수주의를 내세우는 정치학, 즉 신 파시즘주의자들과 우익들은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겠다는 달콤한 거짓말조차 집어치우고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겠다는 명목 하에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복수심을 주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복수일까? 이 모든 사항들은 사실 매우 모호하다. 이들은 사회적인 고통을 덜어내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도모하는 대신 반감을 동력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복수주의적 정치학은 오직 극우주의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상이 정치계의 모든 스펙트럼을 초월하여 번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가 일반적인 구조적 폭력에 대해 냉담하고 잔인하게 대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모한 경제적 복수를 향한 시도에 굴복하고 있는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감옥에 가두는 현상과 기후 위기,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는 부채, 제약회사들의 폭력적인 행태 그리고 일상의 분열로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경제적 복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오늘 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 문화, 정치를 더 넓은 시각 속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식민주의의

역사와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 전세계의 '잉여 인구',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편 위기' 대해서 조사하고 부채 중심의 패러다임을 분석한다. 현 사태에 대해 결코 간단한 답변을 제공하는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개혁적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

서문: 우리는 복수를 원한다

1장. 복수에 대한 물질주의자들의 이론에 대해

2장. 값을 수 없는 빛의 세계에서 예술 작품: 사회적 재생산, 정치지리학, 정착민들의 식민주의

3장. 복수의 수단으로서의 돈: 식민주의 축적과 프롤레타리아식 관행들

4장. 이 시대의 아편전쟁: 고통, 인종, 제국의 유령들

5장. 데드존: 금융화된 허무주의, 악성 부, 복수심에 가득 찬 기술들

결론: 복수 판타지 혹은 보복에 관한 상상

종결부: 복수 자본주의에 관한 열 한가지 이론

<저자 소개>

맥스 헤이븐 (Max Haiven)은 온타리오 주 Culture, Media and Social Justice at Lakehead University의 리서치 위원장이며 ReImagining Value Action Lab (RiVAL)의 이사이다. 그는 학계 및 일반 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글을 쓰고 있으며 『Crises of Imagination, Crises of Power: Capitalism』, 『Creativity and the Commons』, 『The Radical Imagination: Social Movement Research in the Age of Austerity』, 『Cultures of Financialization: Fictitious Capital in Popular Culture and Everyday Life』의 저자이다

제목 : EVERYTHING IS UNDER CONTROL

가제 : 요리의 위로, 음식의 기쁨

저자 : Phyllis Grant

출판사: HQ

발행일: 2020년 6월 11일

분량 : 250 페이지

장르 : 회고록, 요리



★ 저자는 매우 섬세하게 음식과 관계, 감정에 대한 글을 썼다. 사랑에 대한 걸작이다!" -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Eat, Pray, Love』의 저자, 엘리자베스 길버트

★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님 나의 음식식을 통해? 저자는 자신의 깊은 경험과 삶의 섬세하고 풍부한 추억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Inheritance의 저자, 대니 샤피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유명 셰프이자 작가인 저자 필리스 그랜트의 삶은 언제나 '요리'라는 단어로 정의되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빵을 굽는다. 벨기에 와플, 프렌치 토스트, 크레페,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들며 그녀는 심리적 안정을 찾곤 한다.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의 진실한 감정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담은 회고록이자, 그녀만의 귀중한 레시피가 담긴 책이다. 이 회고록은 아주 깊은 저자의 내면까지 파고 들어가 누구나 한번쯤 느껴봤을 법한 진실되고 가장 진실된 감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마치 저자의 부엌 한 켠에 앉아 그녀가 만든 사과 타르트와 아보카도 요리를 직접 맛보고 있는 듯한 환상에 빠져 입에 침이 고이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먼저 그녀의 인생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줄리어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 저자는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며 매일 지옥 같은 훈련과 연습에 최선을 다했다. 그 고단한 시절 그녀를 위로 해준 것은 오직 바나나 머핀을 굽는 일이었다. 하지만 9/11 직후, 저자는 더는 그곳에서 1분도 더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고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가로 돌아왔다. 이곳에 정착한 후 저자는 어느 날 뉴욕을 방문했다 들른 한 식당에서 기가 막힌 양념 맛을 보았고 너무 맛있어서 신이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다. 그 순간 저자는 아내이자, 엄마로서 자신이 주방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여러 고통들과 마주하기도 해야 했다. 바로 섭식장애부터 시작해 산후 우울증, 불임과 같은 역경들이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이 책은 그녀의 셰프 테이블에서 탄생한 레시피들과 한 여성으로서 그녀가 겪은 음식, 가족, 사랑과 상실에 대한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가 포함된 아름다운 회고록이다.

<저자 소개>

필리스 그랜트 (Phyllis Grant)는 IACP 결선 참가자이며 블로그 Dash and Bella로 제 3회 Saveur Food Blog Awards 결선에 진출한바 있다. 그녀는 Nobu, Michael 's 및 Bouley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그녀의 글은 Oprah, New York Times, Saveur, The Huffington Post, Time Magazine, San Francisco Chronicle, Tasting Table 및 Salon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소개된 바 있다. 현재 그녀는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살고 있다.

제목 : THE DESIGN OF CHILDHOOD

가제 : 육아,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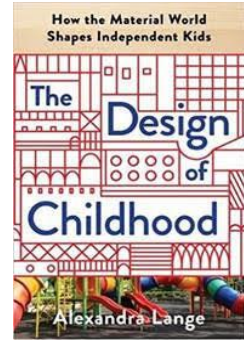
저자 : Alenxandra Lange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6월 12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디자인, 육아



★ “아이들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유용한 로드맵”- 「커커스 리뷰」

★ “저자는 어린이 완구 및 건축 환경 설계가 나날이 발전하며 어떤 식으로 양육 및 아동 발달 철학에 반영되고 있는지 탐구한다. 저자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환영 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 「퍼블리셔 위클리」

디자인은 한 사람의 유년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위대한 건축가이자 교육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나 유명 건축가이자 작가, 발명가였던 버크민스터 풀러는 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혹은 특별히 아동 발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들 한 번씩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자란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지 또 그들의 집과 방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흔히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세세한 일정을 짜거나 유치원 커리큘럼에 엄청나게 집착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아이들이 머무는 교실의 모습이나 놀이터, 이웃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고 있다. 아이들을 둘러싼 물건들과 공간들은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동안에 걸쳐 양육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 또는 부정적인 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건축 비평가이자 디자인 비평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자들을 향해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나무로 된 것을 선택하는지,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선택하는지, 혹은 디지털 기계를 선택하는 편인지 묻는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시소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이들이 시소를 타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주 안전하게 설계된 미끄럼틀만 타도록 허락할 경우 우리 아이들이 그 전 세대의 아이들에 비해 어떤 것들을 잃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한다. 저자는 우리가 만약 모든 것이 잘 갖춰진 환경에서만 아이들을 기르게 될 경우, 아이들의 독립심을 기르는 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만든 작은 풍경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며 놀라운 그 역사에 대해 소개한다. 저자의 매혹적인 연구 결과들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이 어린이들의 행동, 가치관, 건강에 얼마나 미묘한 방식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또한 그 동안 장난감 제작자, 건축가 및

도시설계자들이 무심코 내린 수십 년 간의 결정들이 미국 젊은이들의 독립을 향한 여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동시에 어떻게 방해 요소로 작용했는지 보여준다. 어린 시절 경험하는 건축 환경과 디자인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 1장. 골목들
- 2장. 집
- 3장. 학교
- 4장. 놀이터
- 5장. 도시
- 결론

<저자 소개>

알렉산드라 레인지 (Alexandra Lange)는 New York magazine, the New Yorker, the New York Times, Curbed, Design Observer, Dezeen과 같은 디자인 저널 및 주요매체에 글을 기고 하고 있는 건축 및 디자인 비평가이다. 그녀는 20세기 건축사학 전공으로 뉴욕 대학교 미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작으로는 『Writing about Architecture: Mastering the Language of Buildings and Cities』, 『the e-book The Dot-Com City: Silicon Valley Urbanism』, 『Design Research: The Story that Brought Modern Living to American Homes』가 있으며 현재는 뉴욕 브룩클린에서 살고 있다.

제목 : GENDER REBELS

가제 : 쉬어로(SHEROS): 페미니즘의 역사를 쓴 여웅(女雄) 5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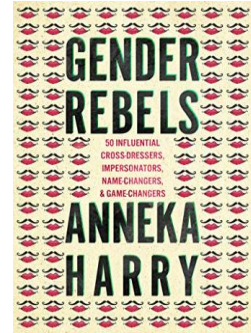
저자 : Anneka Harry

출판사: Little A

발행일: 2020년 6월 1일

분량 : 275 페이지

장르 : 페미니즘



*** "이름 없는 영웅들을 소개하는 흥미롭고도 아름다운 책.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절대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젠더에 대해 생각 할 수 없을 것이다." - 『 Feminists Don't Wear Pink and Other Lies』의 저자 스칼렛 커티스**

현대 여성들은 선배 여성들이 어렵게 개척한 활로 덕분에 이전보다 나아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 앉아 있는 가부장제와 이분법적인 성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 세상은 여성들을 너무나 지치게 만들고 말았다. 여성들은 여전히 타인에 의해 외모와 옷차림으로 평가받으며,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저자 아네카 해리는 현대 여성들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서 살았던 우리 선배 여성들은 결코 자신들의 혁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가부장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여성 영웅들(sheros)에게 바치는 책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 50명의 여성들은 그 어떤 여성들보다도 도전적이고 대담하며 다양한 생각과 성적 지향을 표방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규칙은 물론 자신들의 정체성까지 과감히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뒤흔든 여자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모든 군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런던 땅에 묻힌 첫 여성 군인 킷 카바나와 18세기 여성 해적 메리 리드와 앤 보니가 있다. 또한 흑인 노예였던 남편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 백인 노예주를 살해하고 도망친 노예 엘렌 크레프트,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숨긴 채 이중 생활을 하며 다섯 명의 아내와 함께 살았던 스윙 재즈 뮤지션 빌리 틱톤과 같은 대담한 인물들도 있었다. 또 이란에서는 화려한 축구 실력으로 최고의 인생을 누리고 있는 남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평생 남자처럼 옷을 입고 산 한 여성도 있었다.

저자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여성들의 마음 속에 다시 한 번 불이 타오르기를 소망한다고 말한다. 역사를 조명하며 앞으로도 계속 여성들끼리 연대하여 더 미래지향적이고 열렬한 페미니스트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저자는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처럼 가장해야 하는 오늘 날의 현실을 지적하며 여전히 가부장제가 잠식하고 있는 이 세상의 틀과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다양한 취향과 성적 지향, 성향을 가진 여성들이 모두 다 자신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랄하면서도 유쾌한 페미니즘 도서이다.

<목차>

- 제1장. 하트셉수트 (기원전 1507-1458) 고대 이집트 강국 여왕
- 제2장. 후아 물란 (서기 420-589) 전설의 여성 전사와 낙타를 타고 다니는 여왕
- 제3장. 세인트 마리나 (서기 715-750)
- 제4장. 플랑드르의 조안나 (1295-1374) 불의 사령관, 육군과 지옥의 지도자
- 제5장. 오노라타 로디아니 (1403-1452) 남자 옷을 입고 다녔던 전사
- 제6장. 잔다르크 (1412-1431) 성도를 부르는 군인 성자와 LGBTQ + 역할 모델
- 제7장. 엘레노 드 세스페데스 (1545-1588) 젠더를 바꾼 사람, 현재 아프리카 노예들의 자손의 삶을 만들어 낸 사람.
- 제8장. 매리 프리스 (1584-1659) 담배, 소매치기, 크로스 드레싱 등등 다양한 일탈을 했던 도둑 (이하 생략, 총 50개의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아네카 해리 (Anneka Harry)는 작가이자 코미디 배우 및 프로듀서이다. 그녀는 BBC, 채널 4, ITV와 같은 유명 방송사와 협업한 바 있으며 'Stylist' 및 'Grazia'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매거진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고했다.

제목 : HOW TO EAT RIGHT AND SAVE THE PLANET

가제 : 내몸과 지구를 살리는 식생활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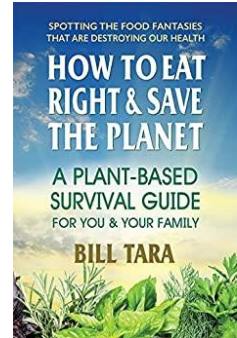
저자 : Bill Tara

출판사: Square One

발행일: 2020년 1월 3일

분량 : 312 페이지

장르 : 건강, 환경



- *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 지구를 위한 식단을 짜는 데 완벽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책"
- 헬렌 뒤몬트
- * "이것은 환경, 동물의 고통, 생명체들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아프리카 국제기금 설립자, 안테네 로바

대기업들, 의료계, 정치계, 광고계는 어느새부터가 윤리적 황무지가 되었고 당뇨병, 심장병 및 암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과 광범위한 일반적 질병들의 근본 원인이 되는 식단을 만들어 냈다. 또한 이들은 인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매년 70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을 죽이는 거대 산업을 만들어 냈다. 하지만 우리 중 아주 소수만이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이 기후 변화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자연건강 요법 전문가인 저자는 우리가 선택한 음식이 이 세상과 나,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 영혼의 병을 고치는 가장 우선적인 조치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영양 문제는 단순히 음식의 화학적 특징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와 정서, 윤리가 긴밀하게 결합된 것이라고 말한다. 책에서 그는 화학 첨가물과 대량 생산된 식품에 의존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영양 섭취 상황을 꼬집으며, 극소수의 용감한 목소리 덕분에 어떤 식으로 건강 패러다임이 새롭고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그는 한의학 및 민간요법의 효과, 영양 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바른 식습관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이를 통해 단순히 먹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생태적 관심사와 완전 채식 습관, 윤리 추구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이끈다.

이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가족의 건강을 위한 식단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식습관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저자는 이처럼 최신 첨단 연구를 통해 밝혀진 영양학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단순히 먹는 방법과 식재료를 선택하는 방법의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이 지구의 환경과 사회의 정의, 지속적인 발전에 깊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흥미롭고도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 속에 실린 최신 연구 결과들과 저자가 일러주는 중요 지침들은 건강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과학자, 영양 상담사, 영양사들뿐만 아니라, 매일 먹고 마시는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 될 것이다.

<목차>

감사의 글

일러두기

머리말

서문

1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1장. 누가 부엌에 있나요?

2장. 은색 총알을 찾아서

3장. 나쁜 약

4장. 심문 기관

5장. 치유의 부엌

2부: 자연을 생각하는 관점

6장. 생각을 위한 음식

7장. 고대의 지혜

8장. 식단과 인간

<저자 소개>

빌 타라 (Bill Tara)는 1967 년부터 자연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으며 스위스의 Kiental Institute와 콜로라도에 있는 Naropa University의 선임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그는 4 년 동안 European Macrobiotic Assembly 의장을 역임했으며 2 년 동안 North American Macrobiotic Congress 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또한 그는 스페인의 SHA Wellness Clinic에서 자연 건강 관리 담당 이사를 역임했다.